

發展的 政治行政觀의 培養

金雲泰
(敎授)

<目次>

- 序言
- 發展的政治行政觀을 위한 오늘의 歷史的 座標
- 日帝植民統治로 입혀진 政治行政文化에 대한 歷史的 인傷處
- 民族分斷으로 惹起된 政治意識의 異質化
- 民族史의 光復과 發展的政治行政觀

1. 序言

여기서 政治行政觀이란 本來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의 產物로서 政治意識(political consciousness)과 密接히 연관되고 있다. 한편 政治意識은 社會的 狀況에서 形成되어 나오는 狀況의 產物로서 國民들의 要求의 바탕을 이루며, 政治文化는 오랜 傳統 위에서 形成된 歷史的 產物로서 國民들의 行態를 決定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韓國의 政治文化 속에서 우리들의 政治意識을 기반으로하여 定立될 수 있는 韓國民의 政治行政觀은 어떠한 것일까? 또 어떠한 政治行政觀이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發展的政治行政觀이란 보다 적극적 입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본래 政治行政觀은 國民이나 個人이 政治現象 앞에서 갖는 世界觀의 일부로서 그 자체가 이미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살피려는 政治觀은 단순히 政治文化나 社會的 狀況에 의하여 受動的으로 決定되어지는 從屬變數의 인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不完全한 政治文化나 制約的인 社會的 狀況을 극복하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디까지나 獨立變數의 政治行政觀 그것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歷史的으로는 政治文化에 (日帝)植民統治라는 커다란 상처를 입어왔고 또 오늘의 狀況 속에서는 國民들의 政治意識에 分斷國家의 矛盾에서 오는 심각한 狀況의 制約을 여전히 겪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韩國民들에게는 그같은 政治

文化의 상처와 政治意識의 制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政治觀이 發展的 政治行政觀이라는 나름에서 결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들이 政治行政觀앞에 붙여놓은 “發展的”이라는 用語의 의미는 우리들이 살피려는 政治行政觀이 過去의 政治文化의 상처를 헤아나지 못한 過去指向의인 그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같은 政治文化의 상처를 벗어나 前進할 수 있는 未來指向의인 그것임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오늘의 分斷國家의 矛盾에서 오는 政治意識의 制約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소극적인 政治觀이 아니라 오히려 그같은 制約을 과감히 克服할 수 있는 創造의인 그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民族史에서 요구되는 우리들 政治觀에 대한 韓國의 인 要請으로 그것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같은 發展的 政治觀을 定立하기 위하여 우선 오늘의 韓國政治狀況에 대한 그 真的 座標부터 먼저 살피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2. 發展的 政治觀을 위한 오늘의 歷史的 座標

韓國人의 政治行政觀定立을 위하여 오늘의 韓國民의 民族史의 座標를 살폈을 때 거기에는 우선 다음과 같이 우리들이 국복하지 않으면 안될 制約의 측면들이 먼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日帝殖民時代라는 과거의 制約과 分斷國家라는 오늘의 矛盾으로 크게 요약된다.

이같은 民族史의 制約과 矛盾들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殖民時代는 곧 韓國人 이제 歷史나 政治의 主體노릇을 할 수 없었던 時期에 해당하고, 分斷國家는 곧 韩國人이 모두 다 함께 제 歷史 + 政治의 主體로 참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狀況에 해당한다.

여기서 韓國民은 前者에서 歷史意識의 斷絕이란 심각한 상처를 입어야 했었고, 後者에서는 다시 政治意識의 異質化란 또 다른 制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制約과 矛盾은 政治文化나 政治意識의 측면에서 볼때는 바로 前者は 韩國人の 政治文化에 입혀진 傷處나 變質에 해당하고 後者は 韓國民의 政治意識에 새롭게 야기된 矛盾이나 葛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리들이 發展的 政治・行政觀을 위하여 찾아야 할 主體性(民族)과 正統性(歷史)이란⁽¹⁾ 民族史의 價值에서 본다면 바로 저 日帝殖民時代는 民族史의 正統性에 대

(1) 主體性은 주로 民族이란 主體에 대한 價值로서 (national identity) 그리고 正統性은 주로 國家란 主體에 대한 價值로서 (legitimacy of state) 각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正統性은 民族史가 그같이 올바른 民族이나 國家라는 主體에 의하여 유지되어 나가는 보다 넓은 歷史的 價值 (historical orthodoxy)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歷史 正統性은 그 안에 民族이란 主體의 主體性과 國家란 主體의 正統性과 文化圈이란 主體의 傳統性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위기(legitimacy crisis)였고 오늘의 分斷國家狀態는 그대로 民族的 主體性에 대한 위기(identity crisis)에 해당한다.

여기서 오늘의 韓國民에게는 스스로의 發展的인 政治行政觀 확립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植民時代의 비극으로 인하여 政治文化에 입혀졌던 否定的인 상처와 함께 分斷國家의 矛盾으로 인하여 새로이 政治意識에 야기되고 있는 異質化的 葛藤등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前者の 傷處를 청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韩國民에게 民族史의 正統性에 대한 價值가 요구되고, 後者の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民族的 主體性에 대한 價值가 또한 요구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韓國의 政治文化에 입혀져온 歷史的인 상처의 모습과 함께 韓國人의 政治意識에서 야기되고 있는 民族的인 矛盾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하겠다.

3 日帝植民統治로 입혀진 政治文化에 대한 역사적인 傷處

우선 韓國의 政治文化에 커다란 傷處를 남겼던 日帝植民時代는 한마디로 韩國民의 近代史에서 최초로 겪어야 했던 主權의 상실기에 해당한다. 民族國家를 특징으로하는 近代政治史에서 主權의 상실이란 곧 國家的 次元(statism)에서의 그 主體의 消滅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國家의 次元에서의 歷史의 斷絕이란 심각한 不幸이었던 것이다.⁽²⁾

4천년 이상의 긴 歷史에서 國家라는 형태의 主體를 거의 한번도 잃어본적이 없던 韩國史에서는⁽³⁾ 바로 그 國家의 상실이 곧 4천년 韓國史上 최대의 불행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또 A.D. 7세기 때 1천년 이상을 統一國家를 이루면서 발전하여온 韓民族으로서는 그같은 統一國家의 상실이 그대로 千年統一 民族史上 최대의 民族的 損失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歷史의 不幸이나 民族的 損失은 政治史의으로 보았을 때 그대로 政治的 主體이던 韩民族을 政治的 客體로 轉落시키는 비극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韩民族은 日帝植民時代를 통하여 제나라 政治의 自律的 主體가 되지 못하고 한낱 植民統治過程의 他律的 客體로 轉落

(2) 그러나 ○ 같은 國家의 次元에서의 正統性의 상실 (主權의 박탈)이 곧 民族史의 완전한 斷絕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民族이라는 歷史의 또 한 主體(즉 主體性)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國家라는 主體를 갖지 못한 民族史자체의 제약이란 실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民族史의 正統性이란 이름에서의 제약을 의미하는 植民地의 상처였던 것이다.

(여기서 대하여는 拙著, 朝鮮王朝行政史 近代篇「開港體制 속에서의 抵抗的 自主」 참조)

(3) 大陸으로부터의 鐵器文明의 侵略에 해당하던 漢四郡州때에도 우리는 部族國家를 가지고서 이것을 물리쳤으니써 오히려 보다 강한 古代國家를 이루어나갔고 (部族國家聯盟으로서의 高句麗等) 다시 저 蒙古族, 滿洲族들과 같은 北方民族들의 무서운 侵略 뒤에서 이전히 國家라는 主體를 지켜나왔던 것이다. (對元 服屬關係나 對清 主從關係라 하드라도) 그것은 民族史와 함께 이어온 韩民族의 國家의 正統性의 永續性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歷史的으로는 내 歷史의 主體가 되지 못하고 남의 歷史의 客體로 轉落되었으며 政治的으로는 政治過程의 自律의이던 主體로부터 한낱 統治過程의 他律의 客體로 後退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여기서 韓民族의 政治意識은 심각하게 他律의 상처를 否定的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바로 參與의이기 보다는 抵抗의이고 開放의이기 보다는 閉鎖의이고 進取의이기 보다는 退讓의이고 肯定의이기 보다는 否定의인 植民時代의 政治行政文化의 傷處는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歷史가 侵略앞에서 守勢로 밀려야했고 다시 歷史앞에서 國家라는 主體마저 빼앗겨 民族이라는 主體는 부득이 創造라는 적극적측면 보다는抵抗이라는 투쟁적 측면에서 그 歷史의 方向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政治意識의 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이와같은 政治意識과 함께 傳統的으로 양성되어온 韩民族의 傳統의인 文化的 優越意識(일종의 自高意識)이나 그것에 기반한 外國(특히 日本)에 대한 排外的 性向등은 日帝의 植民統治를 거부하는抵抗을 통하여 일종의 權威의인 全面否定意識(authoritative, total negativism)을⁽⁴⁾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경향이 바로 政治意識의 形態에서는 反政治的無關心(anti-political apathy)에 해당하는 극단의 否定主義를 낳고 말았던 것이다.

그같은 극단의 否定主義의 경향을 여기서 잠시 저 간절하였던 民族意識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제 四千年 瘋土와 三千里 人民은 하룻밤의 條約을 통하여 저들의 保護國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保護國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들의 內地屬民으로 되겠으며 또한 內地屬民만 된다하여도 오히려 저들과 함께 生存權을 누릴수 있기에 나라는 비록 亡하여도 人種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들의 간악한 侵略은 易種之計를 써서 이제 우리의 人種마저도 말살하고 야 말것이다.……”⁽⁵⁾ (1906년 全羅義兵에서 발표된 布告八道士民)

“오늘날 우리 大韓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國家는 겉으로 있건마는 國權은 없고 人民은 있건마는 自由는 없으며 法律은 있건마는 司法權은 없으니…… 오늘날 우리 韓國民의 가진 것이 그 무엇이라 하겠는가?……” (申采浩의 글 「大韓의 希望」)

여기서 앞의 글은 日帝의 植民統治가 시작되던 1900년대 초 韩民族의 義兵運動을 대표하

(4) 이것은 歷史的으로 異質性을 배척할때 나타났던 韩民族 文化意識의 한 형태였다. 즉 滿洲族에게 저항하면 17세기 戚和에서는 배척의 對象을 「戒虜」로 18세기 西洋의 文化的 충격에 저항하면 關衛에서는 그것을 「夷狄」으로 그리고 19세기 西洋의 物理的衝擊이나 倭의 팽창에 저항하면 衛正斥邪에서는 그것을 「大羊」이나 「倭洋一體」로 각각 의식하며 배격하고 나왔다. 물론 이 같은 全面否定意識 뒤에는 우리의 文化的 優越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면 그 權威의인 性格이 함께 内包하는 것이었다.

(5) 1906년 全羅義兵 布告八道士民 日省錄(勉菴先生 春秋大義錄), 卷三 및 勉菴先生文集, 卷十七, 雜著

고 있던 抵抗意識의 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으며 뒤의 글은 그 植民統治가 절정에 달하고 있던 1920년대 韓民族의 民族史學에서 흐소된 抵抗意識의 한 모습을 역시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植民時代에서 韩民族이 입어야했던 이와같은 政治文化의 상처나 政治意識의 制約은 단·^는히 저들의 植民統治가 이루어졌던 植民期間 내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그 植民統治 이전에 있었던 韩民族의 傳統的인 固有한 政治文化를 그 植民統治 뒤에 살고 있는 오늘의 韩民族으로부터 分離시킴으로써 傳統的인 측면에서 韩民族의 自己喪失^{이란} 보다 심각한 制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民族史에서 흔히 植民史觀의 傷處로서 지적되기도하는 이 內容은 바로 植民統治로 입은 韩民族의 民族史의 상처가 단순히 그植民統治가 이루어졌던 半世紀未滿의期間(1910~1945)에만 머물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온 民族史속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歷史意識을 통해서 볼 때 歷史에 대한 主體의 役割은 첫째 누가 歷史의 主體노릇을 하느냐 하는 實踐主體의 측면과, 둘째 그같이 實踐된 歷史를 누가 받아서 叙述하느냐 하는 叙述主體의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民族史에서는 일찍부터 일단 實踐된 歷史는 반드시 그 實踐된 歷史가 지나간 다음 歷史段階에서 叙述되게 함으로써 언제나 歷史의 實踐主體와 叙述을 멀리 分離시키는 傳統이 이루어져 왔다.⁽⁶⁾

이와같은 傳統으로 인하여 韩民族에 의하여 實踐된 朝鮮朝 5백년의 歷史는 그것의 다음의 歷史段階인 日帝植民統治期에 叙述될 수 밖에 없는 비극을 맞아야했던 것이다. 여기서 日帝의 植民統治는 韩民族에게서 그 實踐主體로 하여서는 36年間(1910~1945)의 歷史를 짓밟았지만 그 叙述主體로 하여서는 온 朝鮮朝 5백년의 歷史를 거의 앗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⁷⁾

여기서 온^는의 韩民族은 그 政治文化面에서 日帝의 植民統治 기간에 입은 異質化의 상처와 함께 그것으로 인하여 온 傳統的인 政治文化에 아울러 입혀진 歷史的 상처를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4. 民族分斷으로 야기된 政治意識의 異質化

이상과 같이 植民統治로 입혀진 歷史의 상처를 셋을 수 있는 회복의 계기는 있었다. 하지

(6) 歷史의 主體에서 그 實踐主體와 叙述主體를 이같이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 民族史觀의 傳統이 있다. 따라서 三國時代의 歷史實踐主體는 三國時代를 담당한 祖上들이지마는 기기에 대한 叙述主體는 그 三國이 지나간 다음 歷史段階인 高麗朝에서 만나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로 서술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것은 高麗朝나 朝鮮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같은 實踐主體와 叙述主體의 시간적 分離는 오히려 歷史를 비관적으로 올바르게 연속시키려는 歷史永續을 위한 한 傳統이었다.

(7) 바로 5^는 온 歷史로 연결될 수 있는 植民史觀의 상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 그러나 韓民族에게는 實現되지 못하였다. 그 契機가 바로 1945년 8월 15일의 光復이었다. 이와같은 光復은 韩民族이 自己의 역사를 다시 빛나게 되찾았다는 歷史的 光復의 概念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⁸⁾

歷史的 측면에서 이같이 회복을 의미하는 韓國史의 光復에는 바로 그 民族的인 측면에서는 韩民族의 解放이 또한 並行되어왔다. 여기서 韩民族에게는 民族的 生命의 회복을 의미하는 民族의 解放과 歷史的 本質의 회복을 의미하는 民族史의 光復이 함께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韩民族의 이같은 光復民族史에도 또 다른 歷史의 制約은 찾아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歷史의 他律現象으로 강요된 民族의 分斷이었던 것이다.

韩民族에게 民族의 分斷을 강요한 저 歷史의 他律現象 자체가 이미 民族史에 대한 또 하나의 矛盾이었고, 이같은 矛盾에 의하여 결과된 民族의 分斷은 그대로 民族이 입어야 했던 또 하나의 巨族的 制約 바로 그것이었다.

解放된 民族에게 즉시 뒤따라온 分斷의 비극 바로 여기서 韩民族에게는 民族은 解放이 되었으나 歷史는 아직 光復이 되지 않았다는 아이러니가 따랐던 것이다.

아직도 完全히 光復되지 않았다는 民族史의 制約, 그것은 바로 政治文化面에서는 아직도 韩民族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自己들의 分離적인 固有 政治文化를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政治意識面에서는 아직도 韩民族이 自己들의 自律的인 政治意識을 완전하게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韩民族은 政治意識에 있어서 民族分斷으로 인한 또하나의 심각한 狀況的 제약을 받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韩民族이 民族分斷으로 인하여 입고있는 政治意識面에서의 制約은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에서 지적될 수 있다.

그 하나는 民族의 分斷으로 인하여 같은 民族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政治意識面에 있어서의 非民族的 異質化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統一民族으로서의 傳統과 分斷民族이란 오늘의 현실 사이의 間隔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政治意識面에 있어서의 傳統과 現代사이의 시간적인 斷絕의 문제인 것이다.

본래 他事로 주어진 韩民族의 分斷에는 처음부터 兩大 強大國 이데오로기에 의한 異質의 分斷이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이 근본적으로 民族을 거부하려는 非民族의 力勢과 體制를 통하여 現實이 進行되어 왔을때 그것은 그대로 民族의 異質化를 통한 韩民族의 民族的 價值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고 있었다.

(8) 近代行國主義 침략앞에서 歷史속에서 잊을수 있는 主體는 國家만이 아니고 民族도 있고 文化圈도 있기。 여기서의 光復은 國家와 民族과 文化圈을 포함하는 모든 歷史의 主體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온 歷史的인 光復으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서 韓民族에게 있어서 分斷이란 矛盾은 政治意識에 있어서의 심각한 同質性(homogeneity of national consciousness)의 破壞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政治意識에 대한 同質性은 과거는 歷史上 일찍부터 民族의 對內的인 統合力과 親和力으로서 結合되어 왔던 韓民族의 傳統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그대로 民族의 상실 내지 歷史의 과거라는 심각한 異質化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韩民族의 分斷은 政治意識面에서 단순한 分離의 恐怖(anxiety of separation)가 아니고 가장 심각한 變質에 의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여기서 바로 分斷된 오늘의 韩民族에게는 思想에 있어서는 非民族性, 意識에 있어서의 非歷史性 그리고 文化에 있어서의 無國籍性등과 같은 制約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 같은 制約들은 그대로 政治文化에 있어서의 非歷史性와 政治意識에 있어서의 非民族性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異質化로 인한 矛盾이나 混亂들은 단순히 오늘의 意識이나 文化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간의 空間的인 形태의 그것만으로 결코 끝나지를 않고 있다. 그것은 곧 傳統과 現代사이의 갈등이란 時間의 形태의 그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韩民族의 政治文化를 이루어왔던 韓國史의 傳統과 오늘의 韩民族의 政治意識을 형성하고 있는 韩民族의 現實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심각한 異質화의 갈등, 바로 여기서 오늘의 韩民族에게는 歷史意識의 斷絕(政治文化의 축면)이니 傳統없는 近代(政治意識의 축면)이니 하는 制約과 批判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制約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제까지 民族의 同質性과 統一民族으로서 쌓아온 民族史의 傳統을 自己 異質化라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 오늘의 分斷된 民族現實로서 계승하고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점 分斷民族史의 矛盾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같이 分斷民族史로 인하여 韩民族이 입어야하는 政治意識의 制約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점 分斷이후 특히 심화되었던 意識의 外部志向의 傾向(other-directed type)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 바디로 韩民族의 自律보다는 強大國의 他律現象이 암도적이었던 分斷民族史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意識의 外部志向의 傾向에는 흔히 内部志向의(inner directed type) 意識이 가질수 있는 合理性이나 그 自律의 創造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는 制約이 따른다.

(9) 民族史의 文脈(5천년 單一民族史와 1천년 이상의 統一民族史)에서 볼때 우리의 「分斷」은 단순한 國土의 分斷이나 政治的 分斷을 넘어선 民族의 分斷 歷史의 分斷으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分斷에 의한 民族의 異質化나 歷史의 異質化는 그대로 그 民族의 異質化나 歷史의 異質化에 의하여 民族史에 상처를 입혔던 植民時代의 歷史斷絕과 연결되는 民族史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分斷에 의한 民族史의 正統性의 위기인 것이다.)

여기서 解放이후 韓民族의 政治意識에는 民族의 内部志向의 自律을 통한 創造性이 強大國에 대한 外部志向의 他律現象에 의하여 위축받는 制約이 따랐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現象에 대하여는 그것이 民族史[밖으로부터 강요되어 온] 狀況的 產物이었다는 說明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편으로 韩民族의 意識[에서] 부터 발동된 内在的인 制約의 요인도 또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解放을 밖으로부터 주어진 他律의 賦物로만 생각한 남아자 그解放과 9. 결된 聯合國등 國外的 狀況에 대한 지나친 恩惠意識이었다.

이와같은 恩惠意識은 물론 언제나 對象앞에서 自己를 다하려는 韩民族의 禮儀[은] 傳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恩惠意識에서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타난 意識의 그같은向外的 趨向은 일단 韩民族의 主體의인 自律性을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近世 朝鮮朝 政治史에서 明으로부터 받은 國家的 恩惠에 대한 지나친 恩惠意識이⁽¹⁰⁾ 자칫 非自主的인 事大的 경향으로 變質한적이 있던 우리의 歷史의인 경향으로 볼 때 특히 절실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5. 民族史의 光復과 發展의 政治行政觀

그러나 이와같은 政治文化의 상처나 政治意識 제약들은 모두 民族史가 밖으로부터 주어진 他律現象[을]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원하지도 않은 植民統治와 뜻하지도 않은 民族分斷으로 因하여 야기된 一時의인 變質이란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서 오늘의 韩民族은 이와같이 他律의으로 주어진 政治文化의 제약[을]에서 좌절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一時의으로 나타난 政治意識의 갈등[을]에서 실망하여서도 안된다. 여기서 韩民族은 그 상처받은 政治文化속에 고식적으로 미물려서도 안되고 또한 갈등속에 異質化되고 있는 政治意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지배되어서도 안된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韩民族에게서 요구되는 發展의 政治觀의 문제가 결실한 것이다. 이 때 發展의 政治觀이란 政治文化面으로는 植民統治에 의하여 잘못 입혀진 상처를 쟁고 韩民族의 본래적인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그리고 政治意識面에서 他律로 강요된 意識의 混亂을 극복하고 韩民族의 主體의인 그것을 다시 발굴함으로써 각각 가능한 것이다.

前者에선 바로 民族史의 正統性에 대한 價值가 요구되고 後者에서 바로 民族의 全體性에 대한 價值가 요구된다. 民族史의 正統性 위에서 韩民族의 政治文化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는 5천년을 ° 어온 民族史의 永續의인 生命力이 나타나게되고, 다시 民族의 主體性을 기반으로

(10) 우선 거기에는 新興 朝鮮朝의 成立에 대한 明의 國家的 承認과 王亂과 같은 國家의 危機 앞에서의 明의 來援등을 들 수 있다. 前者를 朝鮮朝의 國家의 正統性의 확립에서 입은 恩惠라 한다면 後者는 그 朝鮮朝의 國家의 正統性의 危機 앞에서 입은 恩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高麗(朝鮮) 限山隔海 天造東夷 非俄中國所治 聲教自由……」(朝鮮의 建國에 대한 明의 諦命)

하여 韓民族의 政治意識이 확립될 때 거기에는 5천만 民族的인 同等性에 기반한 自律的 創造力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그대로 韩民族의 歷史的 光復이라는 큰 前進가운데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韓民族의 政治意識이 이같이 民族史의 光復을 통하여 그 自律을 회복하게될 때 거기서 나타날수 있는 政治意識의 특색은 消極에서 積極으로 批判에서 參與로 그리고 退讓으로 부터 進取하는 이는바 否定으로부터 肯定으로의 발전인 것이다. 여기서 무릇 오늘의 政治文化에서 定立되어 야할 發展的政治觀이란 한마디로 否定의 抵抗의 측면으로 부터 肯定의 創造의 측면으로의 發展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歷史展開에서 國家라는 主體를 상실하고 그래서 民族이 제 歷史의 主體노릇을 할 수 없었던 否定의 삼황속에서의 韩民族의抵抗은 그대로 民族史上 國家라는 主體를 다시 찾아 民族이 제 歷史의 主體노릇을 하게된 오늘의 光復된 狀況에서 더없이 활발한 創造力이 되어야하기 문인 것이다.

이같이 光復된 民族史속에서 찾아져야할 政治意識의 創造의 측면은 그러나 民族이抵抗해야했던 저 否定의 狀況속에서도 여전히 그 脈絡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本이란 敵對的 侵略勢力앞에 투쟁해야했던 義兵運動에서도 同族끼리의 流血을 피하려는 간절한 民族의 統合力과 念願과 不義는 호소하되 가급적 暴力を 피하려는 “힘의 節約” (economy of power)을 통한 創造의 理性등이 作用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創造의 측면은 결대 우세한 日帝의 軍事力앞에서 투쟁해야했던 舉族의in 3·1운동에서 아예 暴력을 외면한 저 正義와 平和에 호소하는 보다 적극적인 그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民族이 그 근질진 抵抗의 뒤에서 바로 國家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發展志向의 近代國家를 탄생시키는 더없는 創造를 낳았던 것이다.⁽¹¹⁾

그렇기에 這裡에서 살펴본 바 있는 乙巳條約 뒤의 義兵鬪爭이나 1920년에 民族史學의抵抗등에서 발견되는 侵略에 대한 전적인 否定뒤에서도 바로 다음과 같이 肯定의 意識들이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즉

“……倭를 추고 各國公使 및 우리의 政府大臣들을 한곳에 모아 크게 담판을 벌이자. 그래서 우리의 國權을 침탈하고 우리의 生民을 喪虐한 모든 勅約들을 萬國公論에 붙여 벼밀 것은 떠리고 고칠 것은 고치자. 그렇게 함으로써 國家로 하여금 그 主權을 잃지 않게하고 生靈(民族)으로 하여금 그 生存權을 잃지 않게 하려함이지 결코 그 힘과 勢도 해아리지 않고

(11) 이와같이 「抵抗속의 創造」라는 民族史의 특징은 바로 歷史의 矛盾가운데서 특히 밖으로부터 밀려 오는 對外的矛盾 (外民族의 矛盾)이 많았던 우리 民族史의 狀況의 산물이었다. 民族史에 가해 진 저 對外의 矛盾은 커다란 侵略만 하여도 270이회 그리고 大小의 그것을 모두 합칠때 900이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孫普賢, 朝鮮民族史論敘, 1948, 序言 참조)

衆寡不敵의 입장에서 强虜와 싸우려 함만이 아니다.……” (앞글 布告八道士民의 계속)

“…… 그러나 가슴을 펴고 생각하니 아직도 우리에게는 키다란 하나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은 萬有의 주인이라 華가 있으며 實이 있듯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이 있게 마련이다. 옛시대를 돌아보니 장하기도하다. 新羅와 高句麗의 武略은 日本을 누르고 支那를 征복하고 裕州를 격파하고 女眞을 물어버렸다.…… 앞으로의 역사는 온 韓國民의 책임이라 강하노니 우리 韓民들이여 오늘부터 큰 희망을 안고 크게 진보하여 큰 국민을 이루어 나갈지어다.……” (앞글 申采浩의 「大韓의 希望」 계속)

이같이 韓民族의 政治文化의 傳統에서 발견되는 抵抗속의創造나 否定가운데서의 肯定이란 특색은 한마디로 어떠한 絶望的 否定도 농히 国복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韓民族의 主體的生命力과 韓國史의 永續的活力에 그대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意識의 특색을 다시 3·1 운동의 光復運動思想에서 살펴보자.

“敬君聖祖의 子孫인 우리들은 4천3백년 統緒를 이어왔다. 언어도 大韓의 언어요 품속도 大韓의 품속이다.……우리를 탈취한 日本은 오로지 사기와 폭력으로 신뢰와 맹서를 저버렸다. 그러나 요행스럽게 얻은 한때의 세력은 폭풍우나 소나기처럼 걸고 오래갈 수 없다.…… 저 竹木들 보라 들위에 불살라져도 다 없어지지 않고 봄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 우리 2천년의 龍魂이 어찌 이와 틀리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광복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까닭이다.…… 己未年 3월 1일 하늘에 휘날리는 배극기는 하늘의 해와 달과 광휘를 다투었고 드립만세 소리는 천지를 뛰흔들었다. 우리 남녀노소의 유혈이 길에 가득했으나 용기는 더욱 분발되었고 장렬해졌다.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외쳤으며 앞을 다루어 목숨을 떠쳤다. 하늘이 암담했고 풀과 나무까지 울었지만 우리의 義로운 피는 조금도 멎지 않았다.……”⁽¹²⁾

또한 民族意識을 통하여 이같이 확인될 수 있는 韩民族의 歷史的 生命力에 대하여는 일찍이 韓民族을 관찰한 여러 외국인들에 의하여도 확인되어 온바 있다.

거기에서 3·1 운동을 통하여 피어오른 韩民族의 歷史的 活力を 보고 찬양한 저 印度타골 (Tagore)과 韓國讚詩는 너무도 유명하며 그것은 다시 韩民族의 그같은 歷史的 活力を 아예 “韓國獨立運動史”라는 저술을 통하여 추구하기까지 하였던 맥чен지 (Arther Mechenzie)의 설령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19년봄에 일어난 韓國國民의 抗日蜂起는 세계적인 하나의 경이였다.…… 그들에게는 예상했던 온갖 것, 즉 역돌리고 짓밟하고 온갖 고통을 견뎌내야만 되었기 때문이다.…… 이 民族은 터무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文明에 불가결의 것인 自由, 自由信仰, 女子의 정절 및 민족의 발전을 염원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¹³⁾

(12) 朴駿齋, 獨立運動之血史, 序文

(13) Arthur Mechenzie, Korean Fight for Freedom. (李光麟譯, 韓國의 獨立運動)書中에서 著者の序文

그리고 이 날은 韓民族의 歷史的인 活力에 대하여는 더 멀리 저 古代國家 단계에서까지도 中國으로부터 또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

“東夷族들은 어질어서 生命을 귀하게 여긴다. 天性이 柔順하고 道를 잘 지키니 거기에는 언제나 사라지 않는 君子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¹⁴⁾

韓民族의 傳統과 韓國의 政治文化의 特色

그렇다면 그날의 韓民族의 發展的政治觀을 定立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傳統的政治文化의 特色은 무엇일까? 이것은 물론 韓國의 政治傳統의 本質이 무엇이냐 하는 보다 큰 물음을 그前提로 한다.

政治에 있어서의 韓國의 傳統 그것은 오늘의 政治意識에서 우리가 굳이 그 傳統志向의 축면 (tradition directed type)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韓國人의 意識構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내용이라는 점은 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우선 오늘의 韓國政治史가 民族的으로나 歷史的으로 모두 韓國이라는 主體와 그 本質을 회복해야 하는 光復民族史라는 점에서 더욱 절실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같은 우리들의 政治에 있어서의 韩國의 傳統의 特質을 充明키 위하여 歷史的 脈絡의 내용과 연관을 가지면서 주로 政治意識과 政治文化라는 그 思想史의 축면에서 살피기로 한다.

(1) 民族의 「和」의 原理로서의 韩國의 傳統

「弘益人間」, 蘇涂精神, 고인돌文化等 政治文化나 政治思想에서 표착할 수 있는 韩國의 傳統의 特色은 아무래도 먼저 民族의 「和」의 原理에서부터 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和」의 原理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弘益人間」등과 같이 “크다”(弘)는 精神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人間爲一」⁽¹⁵⁾ 같이 “하나다”(一) “같다”(共)는 精神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韩民族에게서의 和의 의미는 단순히 調和나妥協이라는 소극적인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爭고서도(偉大性) 한덩어리를 이룬다(共同性)는 적극적인 의미의 그것이었다.⁽¹⁶⁾

따라서 이같은 和의 精神을 오늘의 政治意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前者の 精神(偉大性)은 주로 民族의 對外的으로 向하는 主體性에 해당하고 또한 한덩어리를

(14) “東夷 其俗仁 好生柔順 易以道御 有君子不死之國……”(後漢書, 東夷傳)

그와 비슷한 說明은 다시 「山海經」前言에도 나오고 또한 夷에 대한 說文解字로도 明示되고 있다.

(15) 이것은 趙光祖에게서 강조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朝鮮朝 士林政治의 本質을 설명해주는 至治主義의 주요한 한 精神이었다.

「君興則本乎一而……聖人 以天地之大 兆民之衆 爲一已……」(靜庵集, 雜著)

(16) 이같이 “크다”(大) “하나다”(一, 同)라는 의미로 짐작되는 和의 原理는 그렇기에 바로 韩國思想에서의 大同主義 精神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韩國의 大同主義 精神에서는 한편으로 하나(一)라는 그 個別的 主體가 강조되며 때문에 여기서는 大同精神은 다 함께 調和를 이루되 어디까지나 그 主體의 個別性을 전제로하는 共和의 精神에 가까워야하겠다. 이것이 곧 韩國思想의 본질로서 흔히 내세우는 「한」의 思想의 核심인 것이다.

의미하는 後者의 精神(共同性)은 바로 民族이 對內的으로 성취하려는 統合性에 해당한다 하겠다.⁽¹⁷⁾

이 같은 和의 原理는 民族史의 으로 멀리 建國神話精神을 대표하는 「弘益人間」의 사상에서부터 이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部族이나 部族國家時代의 集體儀式을 대표하던 蘇塗의 정신이나 韓民族(東夷族) 古代文化의 대표적 한 상징이던 고인돌(支石墓) 文化속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즉 民族史가 시작될 때 그 建國精神이 “人間을 크게 利益되게 한다”는 人間을 主體로 한 弘益思想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그대로 그 뒤에서 이어져나온 우리들 民族史의 基本的 特質을 의기 하는 民族의 和의 原理로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弘益人間思想은 建國 神話의 또 한 모습이던 神人思想이나 敬天思想과 연결시킬 때 그것은 그대로 人間은 神과 같기 귀중하다는 더없는 人間尊嚴思想과 함께 하늘(天)앞에서 모든 人間은 모두 한결같다는 기른바 人本의 平等思想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和의 原理는 人間尊嚴思想을 통하여는 더없이 偉大하다는 그 大의 精神으로 그리고 人本의 平等을 통하여는 모두 하나같다는 그 一의 精神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이 같은 弘益人間의 精神은 단순히 神市안의 構成員만이 아니고 널리 모든 人間을 함께 그 主體로 삼으므로써 그것을 통한 和의 정신은 한없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표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弘益人間精神의 本質를 선뜻 親和思想이라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그같은 弘益人間精神의 기반위에서 진행되던 檀君神市의 政治的 특질을 敬愛政治란 이름으로 담하게 된다.⁽¹⁸⁾

이와 같은 敬愛政治의⁽¹⁹⁾ 特質은 한마디로 天과 君은 人과 民을 사랑하고(愛) 여기에 대하여 人과 民은 天과 君을 공경하는(敬) 相關機能의 親和力を 그 中心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敬·愛政治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親和의 성격은 君과 父는 어디까지나 君과 父로서 그리고 臣과 子는 어디까지나 臣과 子로서 그 職分과 機能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機能의이고도 個別主義의 親和를 그 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²⁰⁾

이와 같이 建國神話에 나타난 弘益人間의 精神이나 거기에서 확인될 수 있는 韓國政治傳統

(17) 이것은 곧 뒤에서 說明하게 될 韓國政治意識의 2 층면 (즉 自主와 進步)과 韓國政治思想의 2 층면 (根本主義과 大同主義)에 그대로 해당한다.

(18) 敬愛政治란 用語와 그에 대한 說明은 玄相允의 朝鮮思想史(亞細亞研究) 가운데의 一章 四節「神市의 意義」참조

(19) 여기에서 敬·愛의 語義는 敬天·愛人으로서 그것은 곧 上下가 서로 敬上·愛下로서 調和를 이루는 親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0) 바로 이런 점에서 敬愛政治의 傳統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韓國政治의 親和力은 그렇기에 저個人이라는 主體와 그 機能을 근본적으로 두루하며 간행되는 全體主義의 平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의 親和的인 性格은 한편으로 우리의 固有한 文化傳統이던 古代의 고인들 文化를 통하여 더 속에明白한 하나의 歷史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즉 數百人이 동시에 동월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수 있었던 고인들 文化는 그대로 民族的인 親和力과 團結力を 한 性格으로 지닌 歷史的 傳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弘益人間의 精神이나 고인들 文化등을 통하여 이같이 확인될 수 있는 親和的인 傳統은 古代國家에 있어서의 하나의 統合理念이된 蘇秦思想을 통하여 더욱 활발하게 계승발전 되어졌다. 본래 蘇秦은 古代國家段階에서의 集團的 儀禮로서 기기에는 思想史적으로 祭天을 통한 祭天思想과 韻舞和樂을 통한 愛民(人)精神과 그리고 善行과 潔白에 대한 祈求와 盟誓를 통한 純潔意志²⁻¹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思想史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일단 蘇秦의 境內에 들어온 成員에 대하여는 비록 罪人이라도 잡아갈 수 없었다는 이른바 神聖不可侵性이었다. 이 神聖不可侵性은 바로 集體內에서 成員을 확보하고 그 成員사이의 親和力を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대로 傳統的인 韓民族의 和의 정신이 보다 구체적인 國家的 統合理念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蘇秦와 같은 儀式들은 天餘의 邀跋, 高句麗의 東盟, 漢匈의 舞天, 高麗의 别人 등 거의 東夷族의 티진에 펴져 있었음을 볼 때 바로 蘇秦에서 보인 그 統合과 親和의 傳統은 우리들의 古代國家에 거의 一般化되고 있던 政治的 傳統이었음을 알게된다.

이와같은 傳統은 三國時代에서는 花郎이나 皂衣仙人을 통하여 그리고 統一新羅³⁻¹이나 高麗에서는 六頭品(知性)이나 豪族들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이것은 다시 近世國家이던 朝鮮朝⁴⁻¹에서는 士林들을 통하여 더욱 활발하게 확대계승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思想的으로 歷史의 발전에 따라 花郎精神, 六頭品의 知性, 그리고 선비精神들을 찾아보게 된다.

歷史的으로 볼 때 花郎精神은 우리의 政治的 傳統인 和의 原理가 三國統一이후 (古代) 民族間의 보다 적극적인 統合에서 발전된 형태이었고, 六頭品의 知性은 일단 이루어진 그 같은 統合이 더욱 긴밀하게 中世國家에서 再結合 發展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和의 原理였으나 그리고 선비(士林)精神은 그같은 和의 原理가 主權과 國境概念을 갖는 새로운 近世國家의 推進力으로 발전되어나온 형태였다.

따라서 이것을 政治思想史란 맥락에서 볼 때 花郎精神은 古代國家(즉 部族國家聯盟)를 통일시킨 民族的 統一의 원천이었고 六頭品(또는 豪族)精神은 中世國家를 再統合시킨 다시한번 나타난 民族統合力이었으며, 선비 精神은 이것을 다시한번 主權개념을 갖는 近世國家로 발전시키기 위한 近世國家的 推進力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新羅 이전에 먼저 民族的 統一의 정신을 (花郎), 中世國家 高麗이전에

民族的 再統合의 精神(六頭品 知性)을, 그리고 近世國家 朝鮮이전에서 民族的 自主精神과 主權概念(主權概念) (선비精神) 각각 찾아야 한다.

본래 花郎은 “邦國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모름지기 風月道를 먼저해야한다”⁽²¹⁾는 강한 國家意識에서부터 출발되었고 그래서 그 花郎 精神의 근본내용이던 “孝悌忠信”은⁽²²⁾ 끝 나라를 다스리는 문바탕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古來의 韓國의 神道나 和의 政治의 傳統이 統一國家 단계에서 하나의 國家理念으로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神市의 상징이던 敬愛政治의 韻은 여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忠과 孝로 강조되었고 여기서 특히 忠은 國家를 대상으로 하는 國家的倫理로서 다른 德目보다도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花郎五戒는 바로 이와같은 철저한 國家意識을 기반으로하여 傳統的인 和의 정신이 더욱 강한 共同社會倫理로 나타난 것이었다.

즉 君에 대한 忠(事君以忠), 아버이에 대한 孝(事親以孝), 친우에 대한 信(交友以信), 싸움에 있어서의 勇(臨戰無退), 生物에 대한 사랑(殺生有擇)등.

이것은 傳統的인 倫理로 보았을 때, 당시 新羅社會의 德目이던 孝悌忠信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즉 事君以忠(忠), 事親以孝(孝), 交友以信(信)을 기반으로하여 여기에 國家에 대한 忠의 倫理가 臨戰無退의 勇을 통하여 추가되었고 殺生有擇의 仁을 통하여 儒라는 사상정신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은 外形的으로 忠孝思想의 확대와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和라는 韓國的政治傳統이 統一國家라는 새로운 歷史段階를 실천하기 위한 韓民族의 政治的推進力으로 발전되어 나온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와같은 共同意識이나 國家理念들은 統一新羅에서는 六頭品들의 國家意識이나 文化意識을⁽²³⁾ 통하여 中世國家 高麗에서는 異民族에게 항쟁하던 일종의 民族意識을 통하여 그리고 近世國家 朝鮮에서는 선비들의 誓國精神이나 義兵等의 民族運動들을 통하여 면면히 계승되어왔던 것이다.

(2) 政治文化에 있어서의 根本主義와 大同主義——「共和」精神의 韓國의 傳統

우리는 「弘益人間」思想을 통하여 우리들의 共同體意識도 살렸고 花郎精神을 통하여 그것의 보다 구체적인 國家意識 형태로의 발전에 대하여도 대략 살폈다. 그렇다면 이같은 共同體意識이나 國家意識등을 발전시켜온 韩民族의 特質의 기본적 바탕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선 우리 民族의 潔白性이 확인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깨끗함”을 지닌 우리

(21) “王之念 欲興邦國 先須風月道……”(三國遺事, 卷三)

(22) “孝悌忠信 理國之大要……”(三國史記, 卷三)

여기서 다시 花郎의 世俗五戒에서 臨戰無退와 같은 勇이 추가되었던 것은 바로 異民族侵入과 같은 國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國家意識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23) 그것도 唐에 遊學하고 돌아온 六頭品 知性 崔致遠의 思想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國有玄妙之道 田風流 其設教之源 皆備仙史……”(鶴郎碑 序文)

民族의 純潔에 대한 사랑精神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 純潔함으로하여 우리를 韓民族이 역사적으로 계승하여온 活力이기도한 것이다.

潔白함으로하여 살아온 우리를 韩民族 여기서 바로 潔白性은 우리를 韩民族을 살려온 歷史的 屬性인 동시에活力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같은 潔白性은 思想史的으로 곧 韩民族이 지켜온 正義精神에 해당한다.

자 數과 繫라는 上・下 관계의 親和力を 통하여 이루어지던 神市(開國神話)의 真善・眞美 하던 敬愛政台가 바로 이같은 潔白性을 나타내는 政治의 출발이었고, 이같은 精神은 그대로 自己라는 主體를 國家라는 共同體 앞에서 賢實 純善하게 연결시키던 저 花郎道의 國家意識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계승되어 나왔다.

花郎精神◦ 서 바로 이같은 潔白性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기에 花郎을 調達하는데에는 選良家男子有德行者”와 같은 潔白한 人格이 그전체로 되고 있었고 또한 그같은 花郎 앞에서는 “손나라 사족들이 모두 높이여 받드는”⁽²⁴⁾ 존경이 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潔白한 人格을 갖춘 花郎과 그 潔白한 人格을 가진 花郎에 대한 國人們의 품모는 바로 統一新羅시대에 있어서 賢佐忠臣이 모두 여기서 돌아나고 良將勇卒이 모두 여기서 나라나는 歷史的活力이 되었던 것이다.⁽²⁵⁾

이와같은 純白性은 저 蘇塗思想의 근본이기도 하였으니 즉 도망자라 하더라도 일단 境內에 들어왔을 때는 물려주지 않았던 일종의 禁忌聖域制度와 그 禁忌聖域으로 하여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政治的 正義는 바로 이와같이 潔白性을 중심으로 하던 政治문화의 產物이었다.

이와같은 靑精神은 殺人者는 죽음으로 그리고 盜賊한 자에게는 奴婢라는 형벌로써 다스려지던 저 箕子八條禁法이나 盜賊한자는 12倍를 배상하여야 하던 저 高句麗의 十二倍賠償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니 그렇기에 이같은 우리 조상들의 生態나 風俗을 보고 당시 外國人们도 다음과 같이 평가 하였던 것이다. 즉 “그 백성들은 끝내 서로 도적질하지를 않아 門을 닫는 우 이 없으며 婦人们은 貞信하여 결코 음난할줄 모른다……”⁽²⁶⁾

이와같은 純白精神은 國家的 受難앞에서는 그대로 爲國의 忠과 忠君의 勇으로 피어났으니 역사적으로 저 三國統一을 끓고 黃山별에서 벌어졌던 羅・濟의 싸움에서는 바로 百濟의 老將 隋白이나 新羅의 少年花郎들의 勇氣가 모두 이 民族의 潔白性의 傳統에서 울어나왔던 것이다.

즉 隋白은 18만 大軍앞에서 싸워야 할 5천 百濟軍 앞에서

“우리 한·라의 힘으로 羅・唐의 大軍과 싸워야하니 나라의 存亡을 알수가 없다……그러

(24) 擇貴人子弟之美者 傳粉粧飾之 名曰花郎 國人皆尊事之也……”(唐令狐澄 新羅國記)

(25) “賢佑忠至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金大問 花郎世記)

(26) “……是以 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 不淫辟……”(漢書, 地理志)

나辱되니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快하게 죽는것이 낳으니…… 마땅히 奮勵快勝하여 國恩에 보답토록 하자……”하였으며⁽²⁷⁾

여기서 대하여 짜워야했던 新羅軍에서는 欽春(또는 欽純)의 손자 少年花郎 金令胤은 “臨陣無勇은 禮經의 경계하는 바요 有進無退는 士卒의 常分이니 丈夫가 臨事自決할뿐이라……”라고

한편 戰死한뒤 屍體로되어 되돌아온 아들 官昌의 참상을 보고도 아버지 品曰은 오히려 “아들이 능히 國事를 위하여 죽으니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다……”고 설파하였던 것이다.⁽²⁸⁾

이것들은 모두 國家앞에 깨끗한 삶을 맹세함으로써 피어나온 韓民族 潔白性의活力이요 勇氣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潔白性의活力은 高麗時代에는 저 40년 對蒙抗爭 속에서 民族意識과 愛鄉心으로 동원되었던 三別抄나 자발적인 農奴軍의活力 속으로까지 나타났으며, 다시 朝鮮朝에서는 언제나 正義와 純潔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선비 精神이나 國難이 왔을 때마다 언제나 스스로 휘둘던 저 義兵精神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무릇白衣를 승상하던白衣民族의 전통은 곧 이같은 潔白精神에 대한 傳統的 象徵이었던 것이다.⁽²⁹⁾

여기서 韓國政治文化의 傳統의 기반의 특색은 이른바 親和思想과 潔白精神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親和는 물론 潔白性 위에서 지켜지는 親和를 의미하고 또한 潔白은 親和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하는 親和의前提를 의미하는 것이다.

民族의 傳統으로서 이같이 潔白을 반드시 그 전제로 하던 韩民族의 親和力, 즉 역사 앞에서 언제나 潔白이라는 自己價值를 통하여 維持되어오던 親和力, 여기서 역사적으로 韩民族의 親和力의 存在形態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根本主義라는 原則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大同主義라는 統合力이 있었다.

政治文化에서 이와같이 原則을 강조하면 根本主義의 측면과 統合力을 강조하면 大同主義의 측면은 저 建國理念이던 弘益人間精神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古代國家의 集團理念이던 敬愛思想에서도 보이고 있었다.

즉 弘益人間이라는 더없이 넓은 統合力 包容力이었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敬愛에 의한 人本의 親和라는 철저한 根本主義가 전제되고 있었다. 이때 敬愛政治는 한마디로 敬天이라는 더없는 人間尊嚴과 愛人이라는 본질적인 人間平等과 같은 철저한 根本主義精神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같이 철저한 根本主義精神위에서 이루어지던 敬愛政治의 목표와

(27) 三國史記, 列傳, 階伯條

(28) 三國史記, 列傳, 官昌條

(29) 韩民族의 民族文化的인 象徵으로서 흔히 고인돌 文化와 住衣의 傳統 그리고 상투(鬢)의 관습등을 들고 있다. (孫晉泰, 朝鮮民族史論攷, 참조)

[그때 고인돌 文化를 民族의 集團의인 親和力에 대한 상징이라한다면 白衣의 전통은 바로 民族이 지켜본 潔白性에 대한 象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은 어디까지나 바로 저 弘益人間精神으로 상장되듯이 더없이 넓은 親和요 統合이었던 것이다.

한편 비록 亡逃者라 하드라도 일단 國邑의 境內에 들어왔을 때에는 물려주지 않고 自己成員으로 삼던 저 蘇塗의 精神은 그대로 親和를 기반으로 하던 더없는 統合의 精神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農耕的 生產단계에서 人口가 곧 國力의 주요 要件이던 古代 部族國家단계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大同主義的 國家理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이 누구도 별할 수 없는 일종의 禁忌聖域制와 그 禁忌聖域內의 神聖不可侵을 유지하는데에는 한마디로 저 政治正義라는根本的 價値가 전제되고 있었다. 여기서 蘇塗의 의의는 流民, 自由選擇에 의한 成員(住民)의 統合이라는 民主的 價値와 연结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統合의 전제로서 住民들이 내리는 自由選擇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각 國邑이 전 천해주는 政治的 正義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날이 政治的 正義라는 根本主義의 축면과 成員의 統合이라는 大同主義의 축면과의 조화에서 이루어지던 蘇塗의 傳統에는 첫째 國邑의 政治的 正義는 오직 住民들의 爭取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民主的(爲民的)인 축면과, 둘째 그 결과 각 國邑의 政治的 統合은 그 政治的 正義를 근거로한 住民들의 自由選擇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自由라는 축면의 가치를 각각 지니고 있었다.

이와같이 特性적으로 根本主義의 축면과 大同主義의 축면의 조화로써 이루어지던 韓民族의 政治的 傳統에는 첫째 統合을 이루되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個人(成員)이라는 主體가 솔인되고 있었고 두는 점에서 民主的 傳統이, 둘째 親和를 목표로하되 거기에는 열지나 個人의 自由選擇이 전제로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自由에의 傳統이 각각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個人(自由)과 全體(平等)라는 오늘의 民主的 價値에서 볼 때 그것을 個人的 自由에만 치우치는 지나친 個人主義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 그것은 全體의 平等과 均一만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지나친 全體主義의 모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政治的 正義(淨白性)에 근거한 根本主義는 곧 全體主義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하는 自主의 원리요, 政治的 同意(親和性)에 근거한 大同主義는 곧 個人主義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統合의 원리인 것이다.

個人의 自主와 全體의 統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韩民族의 政治的 親和의 傳統, 그것은 바로 側人이라는 主體가 全體속에서 自律的으로 함께 調和를 이루어 살 수 있었던 저 共和의 傳統이었던 것이다.

(3) 政治意識에 있어서의 自主의 축면과 進步의 축면——主體性에 대한 民族의 傳統

韓民族의 政治文化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같은 共和의 傳統은⁽³⁰⁾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根

(30) 이때 「和」의 語義는 外形的으로 全體性만을 강조하는 「共同」과도 다르고 또 지나치게 同一性만

本主義과 大同主義라는 韓國思想의 2갈래 特徵의 조화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때 根本主義의 바탕은 바로 潔白性(正義)이었고 大同主義의 바탕은 바로 親和性(統合)이었다.

여기서 潔白性에 근거한 根本主義는 對外的으로 民族이라는 主體를 확인시키는 獨立精神에 해당하고, 親和性에 근거한 大同主義는 對內的으로 民族이라는 主體를 응결시킬 수 있는 統合精神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시 前者의 根本主義는 全體속에서도 個人이라는 主體를 확인 시킬 수 있는 主體(個人)의 原理요, 後者 大同主義는 個人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全體의 調和를 이룰 수 있는 總和(全體)의 原理이다.

이와같은 統合이나 總和의 傳統으로서 우리는 新羅의 和白制度를 가져왔고 獨立과 主體의 傳統으로서는 高句麗의 尚武精神도 지켜왔다. 그래서 歷史的으로 이같이 確定되는 民族의 傳統을 仁의 獨立主義(自主) 正義主義(正義) 尚武主義(勇敢)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¹⁾

이때 正義主義는 民族의 潔白性에 근거한 親和의 근본적인 원리요 獨立主義는 그같은 正義主義가 韓民族을 통하여 對外的으로 표현되어나온 自主의 원리이며 그리고 尚武主義는 그같은 獨立主義를 실천하기 위하여 韩民族이 보여온 民族의 實踐의 원리였던 것이다.

이것은 花郎의 五戒精神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으니, 즉 忠・孝・信等은 對外的인 獨立과 對內的 統合을 위하여 함께 강조된 獨立主義와 正義主義의 倫理였고 勇戰無退의 勇은 獨立主義와 尚武主義를 통하여 나타난 倫理였으며 穀生有擇의 仁(愛)은 尚武主義가 그 본래적인 正義主義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된 倫理였다.

이와같은 思想의 脈絡은 그 이후의 政治史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으니 가령 저 朝鮮朝의 士林政治에서

“하늘과 人間은 본래 하나이니 하늘은 人間에 대하여 반드시 그 理가 있어야하고 人君과百姓은 그에 하나이니 人君은 반드시百姓에 대하여 그 道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을 때 그것은 저 売治主義思想이 根本主義 측면으로 표현된 내용이었고 다시

“政治(人君)는 온 天下의 道를 가지고서 나와 한 사람이 되도록하고 또한 온 天下의 心을 가지고서 나와 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되었을 때 그것은 그대로 그같은 売治主義思想의 大同主義 측면으로 표현된 내용이었던 것이다.⁽³²⁾

이것은 다시 1860년대 西洋의 세력에 밀려오던 西勢東漸앞에서 저항하던 華正斥邪思想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니 즉 我東이란 主體를 正으로 보고 밀려오는 外勢를 邪로보아

을 강조하는 「同化」와도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多樣性속에서도 調和를 이룰수있는 저「不同而和」(질치않으면서도 이를 수 있는 和)로서의 共和를 의미하는 것이다.

(31) 張道斌, 韓國의魂, 1957. 國史院 第二編 韓國思想研究 pp. 40~42.

(32) 趙玄祖, 靜庵先生文集, 卷七, 雜著

이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려했던 저 斥邪思想은 그대로 韓民族의 獨立主義에 근거한 根本主義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根本主義의 抵抗意識 속에서도 오히려 民族史관으로는 民族的團結을 위하여 “위를 낮추고 아래를 높이자”는 소위 損上益下의 實德을 강조하였을 때 그것은 그대로 民族的 親和力의 大同主義의 표현이었던 것이다.⁽³³⁾

이같이 韓民族의 傳統的인 政治文化 속에는 獨立을 지향하는 根本主義의 측면과 統合을 지향하는 大同主義의 측면이 병존 조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傳統은 특히 수많은 外侵의 受難(民族의 矛盾)을 통하여 오히려 民族의 대대적 統合力과 團結(階級의 矛盾의 극복)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韩民族의 歷史의 事實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漢四郡이후 끊임없던 大陸과의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왔던 高句麗와 國家의 團結력을 볼 수 있었으며, 三國統一 과정에서 對唐抗爭이란 對外의 抗爭을 통하여 오히려 民族의 對內의 統合力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저 新羅의 民族統一의 活力を 맞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政治文化의 傳統의 기반에서 발견되는 根本主義의 측면과 大同主義의 측면이라는 특색은 그 政治意識의 차원에서 고찰할 때 自主와 進步라는 두 價値로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내까지 살펴본 根本主義나 大同主義의 측면은 韩民族의 政治文化에서 발견되는 橫的이고도 靜的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려는 自主(意識)나 進步(意識)는 韩民族의 政治意識에서 발견되는 歷史發展에 따른 時間의이고도 動的인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史의 發展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이와같은 自主와 進步라는 政治意識의 특색, 그것은 한마디로 自主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온 歷史의 발전 즉 自主 위에서의 進步라는 韩國史의 發展 특색과 연결되는 것이다.

自主가 中心이 되어서 이루어온 이와같은 民族史의 進步는 그대로 우리를 韩民族 政治意識의 특색을 主體性이란 價値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 民族史에서는 A.D. 7세기 統合을 위한 民族의 自主가 더없이 요구되었을 때 바로 古代國家의, 찬란한 文化가 끊어졌으며, 또 A.D. 13세기 40년의 저 對蒙抗爭 속에서 民族의抵抗의 自主가 활발히 불타 올랐을 때 中世文化의 창조력은 한없이 피어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民族史의 특징은 단적으로 日帝앞에 가장 처절하게 저항해야 했던 저 3·1 운동이란 民族의 自主에의 活力を 통하여 近代國家의 탄생(臨時政府)이란 역사상 가장 전보적인 創造力を 발휘할 수 있었던 近代 民族主義運動에서 일총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民族의 自主라는 價値를 통하여 얻어져왔던 歷史의 進步라는 創造력, 그것은 곧

(33) 奇正鎮, 薩沙先生文集, 卷三, 統「丙寅擬稿」

韓民族의 政治意識에서 무엇보다도 民族의 自主意識이란 본질을 가장 중요한 특색으로 확 인시켜 주는 것이다.

朝鮮朝 士林政治의 政治文化에서 至治主義를 통하여 그렇게도 강하게 根本主義精神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그같은 根本主義精神들도 사실상은 政治意識面에서 士林自身들의 自主나 國家的 自主에 대한 강렬한 自主意識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治者와 被治者가 적어도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소위 「君民爲一」과 같은 강한 根本主義를 내세우고 있던 靜庵 趙光祖의 思想에서는 바로 “나라걱정을 집걱정같이 하라”는 慶國如憂家와 같은 國家의 自主意識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또 그같은 至治主義精神을 이어받아 “은 國民에게서 나오는 公論에 따라 國是が 定해져야 한다”는 國是論과⁽³⁴⁾ 같은 강한 根本主義를 펴던 栗谷의 思想에서는 바로 養兵十萬說과 같은 國家에 대한 적극적인 自主意識이 또한 강조되고 있었다.

(4) 自主意識과 進步意識의 調和——歷史意識의 本質

이와같은 政治意識의 傳統에서도 自主와 進步는 어디까지나 서로 相補的인 調和 관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즉 進步는 언제나 自主를 전제로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고 自主는 또한 언제나 進步에의 價值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趙光祖의 愛國思想 곁에서는 열렬한 維新論이 따르고 있었고 李珥의 國是論 곁에서는 강경한 草舊更張論이 따르고 있었다.

즉

“革舊更新이란 그 是非利害를 따질 때 그重要な 것은百姓에게 便利하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저 貪官污吏나 賤民 모두가 좋다고 하기를 기다려서 고치려한다면 宿弊를 끝내 고칠 날이 없을 것이다.”⁽³⁵⁾라는 李珥의 革新主義는 바로 저 十萬養兵說과 같은 그의 國家의 自主意識과 같은 기반위에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물론 歷史的 狀況에 대해서는 韓末의 衛正斥邪思想(주로 自主意識等)이나 開化意識(주로 進步意識等)등과 같이 自主의 측면과 進步의 측면이 意識的으로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그같은 모습은 1894년 甲午改革을 통하여는 自主意識과 進步意識이同一한 歷史앞에서 서로 갈등하는 矛盾으로까지 잠시 심화되기도 하였다.⁽³⁶⁾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民族史앞에 同時に 밀어닥친 과중한 自主(外勢에 抵抗)과 進步(進化로의 改革)에의 임무를 각각 分擔하여 擔當하지 않을 수 없었던 政治意識의 一時的存在形態에 불과하였다.

(34) 栗谷全書, 卷四, 疏劄, 「王堂論乙巳僞勅劄」

(35) 栗谷全書, 卷二, 書, 「答成浩原書」

(36) 우리는 여기서 甲午改革의 제약을 단순히 “外勢의 干涉에 의한 改革이었다”는 그 歷史的인 外形에서만이 아니고 그 앞에서 韓民族의 自主意識과 進步意識이 分立되고 있었다는 그 內面의인 意識의 제약에서 먼저 찾아야하는 것이다.

그렇기여 당시 自主的 측면의 意識의 가장 큰 줄기였던 義兵運動에서도 萬國公法에 呼訴하고 世界大勢에 並進하려는 開放的인 進步의 측면이 나타났고 進步的 측면의 意識의 가장 큰 봉우리였던 獨立協會의 思想에서는 아예 民族的 自主를 내세운 國家的 自強意識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開港이후 近代史가 斥邪(意識)와 開化(意識)라는 두 줄기로 진행되던 중에서도 斥邪 쪽에서는 ‘道는 나의 道를 지키되 器는 西洋의 器를 배우자’는 소위 「東道西器」⁽³⁷⁾와 같은 進步의 측면이 보였고 한편 開化의 쪽에서는 “먼저 自主의 勢를 공고히한 다음에야 開化의 實을 거둘 수 있고 우선 主權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維新의 効를 거둘 수 있다”는 소위 穩健 開化論⁽³⁸⁾의 自主意識이 보이고 있었다.

이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近代史에서 開港(1876)을 계기로하여 政治意識의 自主의 측면(斥邪)과 進步의 측면(開化)이 서로 분리되던 제약에서 그만一世代 뒤에서(1905)主權을 잃고 야마는 바다를 당하였으며 다시 그같은 두 측면이 강렬하게合一하던 3·1民族運動에서 가장 활약한 近代史의 活力を 엿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韓民族의 自主意識은 그것을 지키려는 韩民族이 치한 歷史的 狀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形態로 나타났다. 우선 그 첫째는 抵抗(敵對) 意識이었고 다른 하나는 恩惠(共存)意識이었다. 前者は 물론 民族이 지키려는 自主를 제약하려는 否定的 狀況에서였고 後자는 바로 民族이 지키려는 自主를 승인하거나 지지해주는 긍정적 狀況에서였다.

우리는 前者の 형태에서 漢四郡 일에서의 수백년 東夷族으로서의 漢族에 대한抵抗과 蒙古族의 侵入 이후 元일에서의 근 2백년에 걸친 高麗의抵抗과 그리고 滿洲族의 侵略 이후 清일에서의 20여년 朝鮮朝의抵抗들이 나타났었고, 後자의 형태에서 朝鮮을 승인해준 明과 땋어온 수백년의 恩惠(友好) 관계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³⁹⁾ 民族의 自主를 위협하는 侵略과 受難의 歷史가 특히 많았던 韩民族에게 歷史的으로 그 自主意識의 存在形態는 대부분抵抗의 그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意識의抵抗의 형태는 어디까지나 民族의 그 對外的 측면에 관한 것일 뿐 民族의 그 對內的인 측면에서는 언제나 이같은抵抗의 형태에 디 없는 民族의 親和力(統合力)이 또한 수반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對外的인抵抗을 통하여 오히려 民族의 對內的인 統合력을 길러왔던 韩民族 政治意識의 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또한 民族의 政治意識이 恩惠意識속에 安住하고 있을 경우 보다도 오히려抵抗意

(37) 그것은 莉正斥邪의 民族의 自主와 開化과는 歷史的 進歩가 하나의 民族主體意識으로合一하였다. 1880年代: 韩國政治意識의 한 특색이었다.

이에 様의 내용으로서 받아드리려했던 彩西의 별위는 技術 機械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점차 政治制度 社會制度와 같은 制度의 측면으로까지 확대되어갔다.

(拙著 朝鮮王朝行政史, 近代篇, 「開化意識의 擴大」 참조)

(38) 穩健開化派인 申箕善의 上疏 (日省錄, 高宗 31 음 10월 3일조)

(39) 이런 점에서 解放이란 賦物이 주어진 光復民族史에서 새롭게 대두된 저 西歐에 대한 思想意識이 또한 우리들의 傳統적인 저抵抗의 自主意識에 큰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識을 통하여 그 투쟁의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歷史의活力이 더욱 활발하게 발양될 수 있었던 民族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漢四郡에 대한 수백년抵抗 뒤에서 高句麗와 같은 古代國家의 推進力を 발견하였고 무수히 계속된 對異民族抗爭과 보다 적극적인 對唐抗爭을 통하여 三國統一이란 民族統合力を 또한 발견하였다. 백여년 對元抵抗 뒤에서는 朝鮮朝라는 新興近世國家의 創建力を 발견하였고 2백여년 對清抵抗 뒤에서는 近代의 自強民族으로서의活力을 얻었으며 (獨立黨, 獨立協會) 다시 수십년 對日抗爭 뒤에서는 새로近代國家를 탄생시킬 수 있는 더없는 民族主義的活力을 얻었던 것이다. (3.1民族運動)

이와같이 民族的矛盾을抵抗克服함으로써 얻어온 民族的自主의活力아기에 그같은 韓民族의 自主意識에는 언제나 지나온 歷史를 상기하여 民族的自主에 대한 확신으로 再創造하는 歷史意識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王亂義兵의抵抗에서 나온 歷史意識과 對清斥和나 北伐思想의抗擊에서 나온 歷史意識등을 발견하게된다. 그같은 歷史意識은 밀려오는 西洋의 扩張勢力 앞에서 저항하던 1860년대 衛正斥邪思想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고 다시 1900년대초 日帝의 侵略앞에 직접 항거하던 義兵運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상의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수난많은 歷史를 오직 民族的自主라는 意志와活力으로써 지켜온 韩民族이 있기에 韩民族에게서 확인되는 政治意識의 中心은 바로 自主意識바로 그것이었고 이와같은 自主意識은 歷史的形況속에서 주로抵抗意識의 형태로 발휘되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韩民族의 歷史意識의 형태를 통하여 부단히 영속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才論文에서 우리는 發展的政治行政觀을 定立하기 위하여 우선 오늘의 韓國政治狀況에 대한 民族史的座標를 살펴 보았고 여기서 日帝殖民統治로 입혀진 歷史的인 否定의 상처의 모습과 解放後民族分斷으로 야기된 民族의矛盾의 量質化的 내용에 관하여 살펴 보았으며 나아가서 오늘의 韩民族이 要求되고 培養되어야할 發展的政治觀으로서 韩民族의 文化的傳統으로 繼綿히 계승되어온 民族的和의 原理, 根本主義과 大同主義 그리고 共和의 精神 및 自主의 進步의 精神등에 關하여 論하였다.